

國公食邑三千戶食實封一千戶仍勅有司襄事贈諡曰光正公申命吊誄以八月二十一日葬于鎮江縣西昌支北麓

銘 曰

遷兮四世功臣開戟門兮食簪 暉天爐兮鑄縉紳一吒兮万万雷一吹兮 王將相功名富貴自古如

積善有素宜克昌厥後幻身勞兮雖人石銘其壽

(二) 崔珙墓誌

維歲次甲寅五月朔壬申二十五日丙申高麗國金紫祿大夫參知政事吏部尚書判戶部事太子少保致仕崔珙墓誌公諱琪溟州人也曾祖曰 曹侍郎平章事祖曰孝溫爲 禮部郎中父曰衡 郎知制誥樞密院副使丁 女 子也有 男 曰思 官受大倉署丞令爲順和縣令女適刑部員郎文 倫先 公而逝公生而穎異已有 牛之量 之 叙爲良 醜合同正以有 安東 超拜行 都監 而爲承 軍器 禮賓遷授權知開門祗 上聞其 太都護府判官 爲寶不 如嬰兒三年有成一邑 上聞其 爲監察御史朝 爲之 夫 而 有立志 閣門副使累 吏部員 郎 九爲郎官者四官刑部兵部左 司吏部 是也廷司 少卿 禮部 郎出 守忠州 未 自徵遷廷爲寧湖鎮副使二州 送迎悲喜之 攀轅 而 或引領 相望 何其得人心 以及代蒞之 忽有 之悲 刑部郎中未幾 司宰少卿 數月餘階加大 將作少監俄廷吏部 郎 及壬辰三月爲樞密院右副丞宣 鳳陛 龍 其揖讓周 之禮爲當時縉 紳 次也 當 爲樞密院副使贊皇猷而爲左散騎常侍入南 爲 司空登 爲知門下遷資爲 參知政事吏部 書判戶部事 所歷階 於朝 無金紫六大 公自 位至於 作祖之光 十有年之 哀榮終始 司謂 享年 病 于第 聞之 勅有司 其山爲

銘

以仁澤物 之龍 節奉 雪壑之 登鳳閣永 千 鏡懸車 最樂 年 俄窮公之富貴善始 善終芳名不 萬古 銘于石永 幽

報 告

宮南池와 土器

洪 思 俊

우리의 先祖들은 生活居住를 自然에 順應하고 自然을 사랑하였으며 自然에 符合하도록 居住의 周圍를 造營하고 生活하였던것을 遺蹟地에서 찾아볼수 있다. 個人의 家園을 만드러서 花園에 池沼를 파고 山을 造範 하여 小自然에 起居하는 風習이 있었음을 볼수 있으며 國王 또한 宮城內 에 庭苑을 造成 한것이 歷代國權이 交替한다하더라도 이 自然을 사랑하였던 것을 記錄에서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이 造苑의 記錄을 보면 가장 最初로 苑圍를 만드렸던 것은 百濟에서도 武王이라 할것이고 다음 新羅에는 太宗武烈왕이 三國을 統一한後 文武王에 와서 비로소 穿池를 하였다는 記錄이 三國史記에 보인다. 즉 文武王十四年二月에 宮內에 穿池造山하고 花卉를 심고 珍禽奇獸를 길렀다는 것이다. 이 穿池造山한地 點은 果然 지금에 어느 곳일까 東京通志卷七 宮室條에 보면 臨海殿이란 項에 孝昭王丁酉(六年)九月에 이곳에서 群臣의 宴會를 열었다고 하였다. 孝昭王丁酉(697年)九月宴群臣於此

다음에는 臨海殿이 있는곳이 宮門이며 穿地한 것과 十二峯을 만들고 꽃심고 禽獸들을 기른 곳이 지금의 雁鴨池라고 하였다. 그 西가 臨海殿인데 礎石들이 남아있으며 天柱寺가 百步에 가까이 있다. 新羅때 宮城內의 內佛堂이라 하였다.

文武王甲戌(十四年)於宮內. 穿地積石爲山. 凡十有二峯種花卉養珍禽今所謂雁鴨池者是也. 基西. 卽臨海殿. 尙有礎砌散委. 而天柱寺址百步而近. 寺羅時內佛堂亦宮門也.....

지금 臨海殿이 있는 東儀 範池한 池岸屈曲이 巧妙한 雁鴨池가 文武王十四年에 穿地한 것을 알겠다. 한가지 添付할 말은 지금 稱號 雁鴨池는 梅月堂詩四遊錄에 題目 安夏池旧址라 는 詩가 있는데

鑿池爲海長魚螺 引水龍喉勢發
此是新羅亡國事 而今春水長嘉不

못을 파서 바다를 만들고 魚螺를 키우며 물을 끄러오는 개울들 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新羅가 國事를 망쳤으며 지금은 봄물에 버를 심어있더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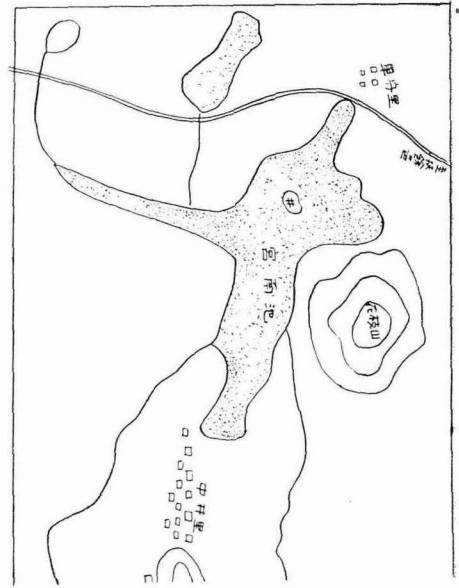
命題의 安夏池는 確實히 雁鴨池임을 詩에 보이는 鑿池爲海에서 볼 때 지금 慶州에는 人造池沼가 이 雁鴨池以外에는 없으며 新羅가 이 池沼로 해서 國事를 망쳤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安夏池 즉 雁鴨池인 것을 알겠으며 漢字音에서 볼 때 安夏가 雁鴨과 近似音임에서 지금의 雁鴨이 된 듯도 하다. 한편 이 雁鴨池는 三國統一을 한 記念物이 될 수도 있고 當時 唐과의 使臣接待의 場所인 지도 모르겠다. 雁鴨池가 文武王十四年(A.D. 六七四年)에 되었다면 이보다 四十年前에 만드러진 扶餘邑南方에 있는 宮南池는 武王三十五年三月에 穿池되었고 引水二十餘里라 하였는데 이 池沼에 引水는 지금의 陵山里東十里의 靑馬山城南谷에서 始作되는 것이다. 池沼四岸에는 楊柳를 심고 그 水中에 鳥嶼를 만들어서 中國古代에 仙人이 살았다는 方丈山을 模倣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武王三十五年(A.D. 六三四年)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鳥嶼. 擬方丈山

그리고 武王三十九년에는 王이 妃嬪과 大池에서 鬻노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泗泚城門에는 또 하나의 穿池한 곳이 있다. 靑山城南方에 月舍傍(池) 또는 麗山 傍축이라고 하는 池沼가 있었으나 八一五 解放二년에 畜으로 開墾한 곳이다. 俗號 麗山傍축 月舍傍축으로 通稱하나 麗山은 지금의 靑山城을 말하는 것이오 實名은 月舍池인 것을 月舍池가 麗山바로 南에 있음에서 두 이름으로 呼稱한 것이다.

宮南池와 月舍池와의 大小를 比較한다면 宮南池가 月舍池보다 三倍가 큰 것이나 이 月舍池는 扶蘇山 迎日樓에서 바라보면 月明山靑馬山)에 돛 달이 이 月舍池에 投影되어 奇觀을 이루었으리라고는 생각된다면 武王이 妃嬪과 大池에 泛舟한 것이 月舍池 된적도 한 것이다.

武王三十九年春三月. 王與嬪御泛舟大池



宮南池略圖

또한 宮南池는 三國遺事 武王傳에 있는 說話가 잠든 곳이기도 하다. 다 아는바와 같이 百濟第三十代 武王의 이름은 璋이며 母가 寡婦로 있어 京師(지금의 扶餘 즉 泗泚城) 南쪽 池邊에 築室하고 있었다. 池龍(王을 稱함인龍)과 交通하여 武王을 낳았다. 兒名이 薯蕷인데 器量이 넓어서 難測이고 尙상(薯)를 캐다가 팔아서 生業을 함에서 薯蕷이라 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第三十代 武王名璋. 母寡居, 築定於京師南池邊池龍交通而生. 小名薯蕷器量難測常掘薯蕷. 賣爲活業. 國人以爲名.

이 三國遺事의 武王傳說을 보면 武王의 母가 홀어머니로써 지금의 宮南池(俗稱마래방축) 東北側 花岐山麓(지금 그 遺趾가 있고 礎石들은 마래사람들이 家에서 使用한)에서 살았었다. 池龍과 交通해서 武王을 生했다는 것은 武王의 前王인 法王? 과 接하였다는 것으로 보며 어립적

兒名이 舊童이 된緣由는 항상 마를 캐다가 팔아서 生業을 한데서 불려진 것이라 하니 無名의 舊童母가 王의 寵幸을 입고 男兒를 낳았으나 生活이 窮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舊童의 사람됨이 器量이 넓어서 難測이라 한 것이다. 한편 武王의 이름이 舊童이외에 一昔 篩德 또는 獻丙이라 하였고 金馬誌에서는 摩婆孫이라고 하였으며 王號에서는 武康이라고도 하였다. 中國에서는 이미 없어진 齊司徒從事中郎 吳郡陸某字明霞撰의 繫觀世音應驗記 附錄에는 百濟武廣王이 枳慕蜜地에 遷都云하여 武王이 武廣王이라고도 呼稱하였던 것을 알겠으며 따라서 三國遺事에 武康은 武廣을 誤傳誤記한 것을 알겠다. 이 武康王의 誤記로 해서 金馬가 箕準의 古都로 變換한 것임도 짐작하겠다(武康王은 馬韓의 始祖).

二

이런듯 武王의 傳說을 지니고 있는 宮南池 즉 마래방죽은 百濟國이 滅亡한 後로 千三百餘年間 無主公物이 되어 統一新羅 高麗 李朝에 걸쳐 손한번 變적이 없음을 우리나라 庭園技術의 衰退를 證言한다고도 하겠다. 別紙宮南池略圖는 倭政時代 아직 人煙이 稀少하던 當時의 地圖(五萬分之一地圖)로 지금도 그 池形을 알아 볼 수 있는 池岸의 痕迹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農地가 人口에 比해 狹小함에서 公有水面을 耕地化하게 된에서 이 宮南池約三萬坪의 廣大한 池面도 池沼가 淺은 深處를 除外하고 池沼가 深은 池邊을 蒙耕하고 이를 私有化하는데서 지금에는 겨우 九千五百餘坪이 殘餘하여 있다. 이 殘餘池도 宮南池가 史蹟으로 指定받기以前에는 二十餘人 마래部落 農民들이 私有化를 圖謀하고 關係要路에 陳情이 頻繁하던 것이나, 不幸中 多幸으로 文化財로써 指定을 함에서 危機一髮에 祖上의 遺址를 一部이나마 되찾게 된 것을 慶賀해 마치 않는다.

宮南池는 遊宴의 場所도 될 것이지만 百濟王都를 守備하였던 羅城의 役割도 한 것 같다. 羅城이 扶蘇山을 主軸으로 左側은 青山城을 經由 東門址와 扶餘邑鹽倉里 西에 있는 山을 거쳐서 白馬江岸에 이르러섰고 右

側은 扶餘邑을 包圍한 白馬江을 沿해서 現城末里에 그치고 있음으로 都城 南方에는 無防備狀態가 됨에서 이 宮南池가 南方을 白馬江과 같이 二重의 壘濠가 되었을 것으로 思科된다.

距今 三十餘年前만 하더라도 八千五百餘坪中央에는 百濟當時의 水中 島嶼이었던 築石이 남아서 거기에 植栽했던 물버들이 잉크이고 봄에는 新芽가 도다나고 가을에 落葉이 저서 邑民들은 뜰심이라고도 한 적이 있었으나 八·一五解放後에는 이 築石과 그 물버들이 말끔히 除去되었고 池沼에 잉크이었던 마름(蓼)마저 걷어다가 飢饉에 食糧으로 먹은 것을筆者가 본 것이다. 當初 宮南池의 三分之一에 不過한 八千五百餘坪이 史蹟地로써 指定이 된 後에 文化財管理局에서는 宮南池의 復元工事로 築堤作業을 서둘러서 耕地로써의 池沼바다를 1M深으로 걷어내는 흙으로 堤防을 土築한 것은 一九六六年五月頃이 된다. 池底를 堀鑿하는 개흙속에 서는 意外의 百濟土器가 개흙에 섞여서 出土되는 것을 보고 筆者가 收檢한 것을 이번이 紹介하고자 한다.

三

池苑이라 하면 一時感興에서 景概를 翫賞하고 心懷를 舒暢하기爲한 場所라 할 것이나 宮南池에서 土器類가 多數 出土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常住하였다는 것을 알겠고 이 土器에는 歷代遺物이 混出함이 아니고 善전히 百濟時代 土器만이 나온다 는 것은 百濟當時에만 이 宮南池를 善用하였고 以降 統一新羅 高麗 李朝時代에는 이곳을 放置하였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土器가 出土한 곳은 現水中에 島嶼을 新設한 南과 北에서 나온 것인데 新設島嶼는 舊址의 島嶼자리가 된 적도 한 것이다. 水中閣이 무너지자 土器를 破壞投擲한 것이 島嶼의 南과 北에 던졌다고도 할 것이다. 出土 土器에는 円體에 左右에 만 전(邊)이 있는 것과 三脚盃 및 蓋 土製燈蓋이 있고 七孔시루(甌)破片 焚口破片 無文數磚破片等等이 있다. 食品을 갈았던 研石二種이 있으며 그리고 數右用차돌이 있고 淡綠色으로 用途未詳의 돌이 있다. 또는 土器에 附着한 손잡이 角形이 있다 하면 現用陶器에 붙어 있는 上下孔이 通한 손잡이가 있으며 蓋에 附着된

꼭지도 나왔다.

其他土器는 破片인데 土器口部만을 모아서 보니 大、中、小形の 土器에서 떠러져 있는 것이 十五種이 되며(土器口部(六)(이) 中에는 瓶口部가 있다. 그리고 土器底面만을 모아보면(土器底部(七)) 十一種이 되는데 이 土器底部들은 大形이나 中形은 없고 작은 土器의 底面들로 日用器皿에서 使用하던 土器의 底面같다.

以上이 蒐集된 土器類와 石類인데 土器破片이 이 水中島嶼의 南北에서 出土되는 것은 鳥嶼 水中閣에는 사람이 常住하였던 것을 알겠고 研石이 나온다는 것도 食品을 가졌음알 알겠으며 無文博片이 있는 것은 亭閣內에 깔렸던 敷博으로 짐작하며 小形の 白色 차돌은 海邊에서 自然水磨된 것인데 亭閣外部 庭中에 깔렸던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萬若에 水中 亭子가 있다하면 池邊에서 亭子까지의 架橋가 있을 것이나 橋脚은 發見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現在 鳥嶼를 만든 北側에서 出土한 土器에 焚口가 나왔으며 불을 맨 재(灰)가 한곳에서 發見하였는데 이 재가 있는 것은 住居의 焚口에 남았던 재인지 或은 假設焚口の 재인지未詳한데 濶突에 使用하던 石材는 보이지 않았다.

四

宮南池가 A.D 六三四年에 穿池한 遊苑의 池沼로써 우리나라 苑囿界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었고 池沼範圍도 이와같은 廣大한 三萬餘坪의 것은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 農耕用 灌溉池로는 있다 할 것이나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는 宮苑의 池沼로는 宮南池가 最古最大의 것이라 할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三萬餘坪의 池沼가 九千五百餘坪으로 縮少되어 있으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池形이 아직도 남아 있으므로 옛池形을 따라 復元의 機會가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閑散한 扶餘邑에 이 宮南池가 한껏 옛 역사를 알리는 史蹟址에 不過 하나 觀光의 扶餘、古都의 泗泚城、보는 扶餘보다 느끼는 扶餘라 할진대 머지않은 將來에 宮南池復元을 서두를 때가 到來할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洪城葛山面 東星里 翁기점 調査

鄭 明 鎬

이 略報告는 一九六九年八月부터 一九七〇年一〇월에 이르는 사이에 韓國甕器店의 生態에 대한 研究를 위한 基礎作業 結果를 略報告書로서 提出하고자 한다.

一九六九年度 前半期에 이리 Rodger I, Eddy에 의하여 韓國甕器店의 生態에 對한 研究를 始作하였다.

이 研究를 實施함에 따라 美國에 있는 Smithsonian Institution이로부터 研究補助金을 支給받게 되었다.

이 研究를 위하여 孫寶基博士와 金元龍博士의 直接的인 指導下에 鄭明鎬와 鄭明鎬는 一九六九年八月下旬부터 本格的인 研究事業에着手하게 되었다.

翁기점에 대한 研究는 廣範圍한 韓國陶土工業分野중에 있어서 가장 最近까지 널리 普及되어 傳來되어온 韓國唯一한 傳統的인 窯業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對한 關心과 研究는 陶磁研究에 비하여 전혀 研究가 되어있지 않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라 하겠다.

韓國의 翁기는 韓國民族에게 널리 愛用되어온 生活必需品으로서 우리들의 生活周邊에서 恒常 가까이 대하고 있는 貴重하고도 보편적인 道具중의 하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귀히 쓰여지는 이들의 生産地인 翁기점에 關한 調査를 實施한지 滿一年이 넘었다. 翁기점 生態와 分布 關係資料를 수집하던중 매우 貴重한 새로운 가마(窯爐)를 調査할 機會가 있었다.

一九六九年九月一二日 서울特別市城東區踏十里洞二七七番地에 所在하고 있는 踏十里土器店을 調査하게 되었다.

이 土器店의 主人 吳明寬氏와 對話끝에 忠淸南道翁山地方에 『조대가마』가 一〇餘年前까지만 하여도 存在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와같은 가